

신체 매력이 대인지각과 인상평정에 미치는 영향

김혜숙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신체 매력이 대인지각과 인상평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 1에서는 대학생 피험자들이 고매력, 중매력 혹은 저매력의 남녀 사진(얼굴)들을 보고 성격특성과 가정생활·직장생활에서의 역할수행에 대해 평가하였고 또한 친구·피고용인·데이트 상대·배우자로서의 바람직성을 평정하였다. 실험 2는 실험 1의 결과를 반복 검토하였고 아울러 개인차 변인(자기검색과 성역할유형)이 신체 매력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 신체 매력의 효과는 서구의 경우와는 다른 문화차이가 나타났다. 즉, 신체 매력이 인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 대상에 대해 다르게 나타났는데, 얼굴이 매력적인 여자에 대해서는 사교적·외향적이나 덜 따뜻하고 덜 친절하며 더 허영심이 많다고 지각하였고, 또한 가정생활·직장생활에서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도 덜 매력적인 여자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친구나 피고용인으로도 보다 특별히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친구나 배우자로서는 매력적 일수록 선호하였다. 남자 대상에 대해서는 신체 매력의 후광효과가 나타나, 얼굴이 매력적인 남자는 사교적·외향적·따뜻·친절·지적이라고 지각되었고, 가정생활·직장생활에서 덜 매력적인 남자보다 더욱 원활하게 역할수행을 하리라고 평가되었으며, 친구·피고용인·이성친구·배우자로서도 덜 매력적인 남자보다 더욱 선호되었다. 피험자의 자기검색정도나 성역할유형은 신체 매력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얼굴 원형(prototype)이 인상평정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신체 매력이 대인 관계에 있어 서나 직업 활동에 있어서나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보다 나은 외모와 체격을 갖기 위해 운동이나 식사조절 등의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특히 신세대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고, 성형수술은 이제는 더 이상 연예인들만의 선택이 아니며, 심지어는 취업장면에서도 외모가 중요해져서 남자들도 보다 나은 외모를 위해 신경쓰는 일이 드물지 않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진작부터 “멋진 외모(good-looks)”에 사람들이 기울여 온 관심은 가히 강박적인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외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광

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Dion, Berscheid 및 Walster(1972)는 신체 매력의 후광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여,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더 사교적이고 따뜻하고 안정되며 재미있고 지적이고 직업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지각된다고 밝혔다. 신체 매력은 또한 데이트나 결혼의 행동의사(Berscheid & Walster, 1974; Walster, 1966), 인사선발 상황(Dipboye, Arvey & Terpstra, 1977) 뿐만 아니라 법정판결 상황(Sigall & Ostrove, 1975) 등의 광범위한 영역의 대인관계와 대인평가에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력적

인 용모를 지닌 사람들이 많은 다른 성격적 장점들도 가지고, 데이트상대나 배우자로서 더욱 적합하며 또한 피고용인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Eagly, Ashmore, Makhijani 및 Longo (1991)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을 보고한 76편의 연구들에 대한 meta analysis를 한 결과, 이와 같은 신체 매력의 후광효과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신체 매력의 긍정적 효과는 보다 온건한 정도여서, 신체 매력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적 자신감이 가장 두드러지고, 힘 (potency)과 적응력이 또한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으로 지각되지만, 신체 매력과 정직성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특성은 거의 상관없이 없는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그들은 교만 혹은 허영심과 같은 부정적 특성도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으로 지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다른 사람의 외모에 의해 판단이나 행동이 영향받는 정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즉, 높은 자기검색자 (self-monitoring)는 낮은 자기검색자에 비해 데이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나 가상적 상황에서 피고용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나 상대의 외모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아 비매력적인 사람보다는 매력적인 대상을 선호하였다 (Snyder, Berscheid & Glick, 1985; Snyder, Berscheid & Matwychuk, 1988). 높은 자기검색자는 외부 상황과 대인 상황의 특수성에 맞추어 적합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그러므로써 자신의 공적 이미지 관리를 하고자 한다. 반면, 낮은 자기검색자는 자신의 내적 태도나 특성에 맞추어 일관되게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성격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높은 자기검색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 성격보다는 외모에 중요성을 두어 결정하고 낮은 자기검색자는 외모보다는 성격특성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신체매력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개인차 변인은 성역할 (sex-role) 유형이다. Anderson과 Bem (1981)은 성유형화된 사람들보다는 양성적인 사람들이 매력적인 대상에 대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기꺼이 반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성유형화된 사람들은 양성적 사람들에 비해 더욱 고정화된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받았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하였다.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이와같이 다양하고 풍부한 서구의 자료와는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모가 매력적인 남·녀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자 하며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없다. 신체 매력을 매우 중시하고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서구 문화와는 다른 심리 기제가 우리 문화에서는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옛부터 우리 문화에는 “미인 박복”이나 “인물값을 한다” 등의 인식이 존재해와 “미”에 대해, 특히 여자의 뛰어난 아름다움에 대해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로 불길하게 보는 경향마저 있다. 또한, 남자들이 있어 외모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한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적어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신체 매력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남성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문화에서 신체 매력이 대인 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떠한가를 검토하였다. 즉, 서구의 경우와 같이 신체적 매력에 대한 후광효과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2)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과 어떠한 인간관계 (데이트·결혼·고용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3) 평정자의 특성 (즉, 자기검색경도와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신체 매력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험 1에서는 매력도수준 (고, 중, 저)이 다른 남·녀 사진들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해 성격특성, 직장·가정생활에서의 효율성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상인물과 갖기를 원하는 관계에 대한 평정들을 하도록 하였다. 실험 2는 실험 1의 반복 연구로 실험 1에서 나타난 신체매력의 효과가 실험 2에서도 반복되는지를 알아 보았다. 또한 실험 2에서는 지각자의 개인차에 따라 신체매력의 효과가 달리 작용하는지를 알아 보았다.

실험 1

실험 1에서는 남·녀 대학생 평정자들이 신체적 매력

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알아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남·녀의 특성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 혹은 “내현적 성격 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을 가지며, 또한 일상생활의 여러 중요한 관계를 갖는 데 있어 상대의 외모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사람들과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지므로 서구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대인지각과 판단에 미치는 신체매력의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는 보다 약한 형태로 나타나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실험 1에서는 이와같은 신체매력의 효과에 있어서의 가능한 문화차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방 법

피험자

실험 1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이주대학교 학생들로서 심리학 개론과 하계학기 수업을 듣는 총 168명(남 84, 여 84)이었다. 실험설계는 매력도(3:고매력, 중매력, 저매력) *대상의 성별(2:남, 녀) *피험자의 성별(2:남, 녀) *사진의 조(2:1조, 2조)의 4요인 혼합 설계로 두번째 변인이 피험자내 변인이었고 나머지는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사진의 조는 일반화를 위한 것으로, 각 매력도수준에 남·녀 사진 각 1명씩을 1조로 삼았다.

도 구

1. 제시된 사진

본 실험에 사용된 사진들은 사전검사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사전검사는 연구자들이 수집한 40장의 사진을 본 실험과 관련된 200명의 피험자에게 그 매력도를 평정하도록 하여 그 중 12장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즉, ‘매우 매력적이다’에서부터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로 구성된 7점 척도에 표시한 자료의 평균을 구하여 세가지 매력도 수준(고매력, 중매력 및 저매력)으로 사진들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각 매력성 수준에 4장씩(남자 2

장, 여자 2장)의 사진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반화를 위해서였다. 이렇게 선정된 사진들은 모두 20대의 남·녀 사진들이었으며, 사진의 크기는 가로 3cm, 세로 4cm로 모두 칼라 사진들이었고 정면사진들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사진(12장)들에 대한 매력도평정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매력도수준별로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매력도 수준별 제시 사진들에 대한 매력도 평가의 평균

매력도	조	대상의 성별			
		남	자	여	자
고	1	2.39	(1.33)	2.34	(1.49)
	2	2.94	(1.03)	2.47	(1.66)
중	1	4.07	(1.55)	4.14	(1.36)
	2	4.40	(1.59)	4.30	(1.16)
저	1	6.00	(0.87)	6.17	(0.38)
	2	6.17	(1.17)	6.07	(0.91)

- 주 1. 평정은 7점 척도(1: 전혀 매력적이지 아니다, 7: 매우 매력적이다)를 사용하였다.
 2. ()안은 표준편차임. 이하 실험 1의 표의 주를 생략함.

2. 질문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대상인물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묻는 질문으로, 가정생활에서의 역할수행과 행복도를 평가하는 5개의 문항들과 직장생활에서의 인간관계와 달성가능한 지위, 또한 원활한 역할수행 등을 묻는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가정생활에 대한 문항들은 “가정생활에서 행복할 것이다”, “가정생활에서 며느리(사위)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다”, “시부모님(혹은 친정부모님)을 잘 공경할 것이다”, “부부생활에서 아내(또는 남편)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다”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다”의 문항들이었다. 직장생활의 적응도에 관한 문항은 “직장생활에서 유능할 것이다”, “직장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다”, “직장에서 동료들 혹은 상관들과 원만히 지낼 것이다”와 “직장에서 누가 보든지 안보든지 열심히 일할 것이다”였다. 두번째

부분은 대상인물의 성격특성을 평가하도록 한 문항들로, 15개의 양극적 특성형용사들을 사용하여 7점 척도(1: 부정적 의미 7: 긍정적 의미)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들 형용사는 지적이다-지적이지 않다, 자신감이 있다-자신감이 없다, 정직하다-정직하지 않다, 믿을 만하다-믿을만하지 않다, 외향적이다-내성적이다,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따뜻하다-냉정하다, 남을 잘 돕는다-남을 잘 돕지 않는다, 사교적이다-비사교적이다, 성실하다-불성실하다, 친절하다-불친절하다, 허영심이 없다-허영심이 있다, 정서적이다-비정서적이다, 깊이 생각한다-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안정감이 있다-안정감이 없다 등이었다. 세번째 부분은 피험자 자신이 개입된 상황에서의 평가를 하도록 하여, 대상인물과 결혼을 했을 때 또 측제 파트너로 선정했을 때 얼마나 만족해 할지, 친구로 사귀었다면 어느 정도로 비밀을 털어 놓을지, 또한 얼마나 고용하고 싶을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네번째 부분은 호오도 평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매력성에 대한 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모든 문항들은 7점척도 상에(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표시하도록 하였다.

절 차

본 실험은 1회기에 6명씩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6명의 피험자가 모두 실험실에 들어와 앉으면 이 실험이 인상형성에 관한 실험으로, 사진을 보고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도록 하여 후에 그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첫번째 질문지를 배부하고 피험자에게 미리 무선배정된 조건에 맞는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첫번째 사진에 대한 평가가 완성되면 두번째 질문지를 배부하고 두번째 사진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어느 한 피험자에게 제시된 사진들은 동일한 매력도 수준의 남·녀 사진 두장씩이었다. 이때 제시된 사진의 성별 순서는 역균형법으로 순서효과를 통제하였다. 실험이 다 끝나면 실험에 관한 비밀 보장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조작 점검

사진의 매력도 조작이 성공적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사진의 매력성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분석은 3(매력도) * 2(대상의 성) * 2(평가자의 성) * 2(조)에 대한 4원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대상의 성'은 피험자 내 변인이었다. 제시사진은 7점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매력도의 주효과와, $F(2, 152)=80.54, p<0.01$, 조의 주효과, $F(1, 152)=8.80, p<0.05$, 매력도와 대상의 성의 이원 상호작용효과, $F(2, 152)=3.55, p<0.05$, 매력도 * 대상의 성 * 피험자의 성의 삼원 상호 작용효과, $F(2, 152)=7.95, p<0.01$, 그리고 매력도 * 대상의 성 * 조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 152)=3.38, p<0.05$.

매력도의 주효과는 예상했던 대로 매력도수준의 순서로 대상인물의 매력도가 평정되었음을 보여주어(고매력: 4.68, 중매력: 3.7, 저매력: 2.33) 매력도의 차이는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녀 대상 각각에 대해 매력도의 효과를 Duncan 검증한 결과, 각 매력도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0.05$). 그러나 또한 대상의 성과 평정자의 성 그리고 매력도수준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그 평가평균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이 여성대상을 평가할 때와 남성대상을 평가할 때 모두 매력도가 고, 중, 저 순으로 높이 평가하였지만 특히 여성을 평가할 경우 남성을 평가할 때보다 고매력대상을 더욱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남성평가자에 있어서는 남·녀 대상에 대한 평가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평가자는 저매력의 대상에 대해서는 등성일 때 이성일 때보다 더 후하게 평가하였다.

<표 2> 대상의 성, 평정자의 성 그리고 매력도 수준에 따른 매력성 평정 평균

평정자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여	고	5.15	(1.38)	4.38	(1.36)
	중	3.29	(1.15)	4.07	(1.12)
	저	2.86	(1.27)	1.79	(1.10)
남	고	4.48	(1.53)	4.67	(1.24)
	중	3.67	(1.36)	3.78	(1.69)
	저	2.00	(1.15)	2.68	(1.06)

요약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조의 효과 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진들의 매력도 수준은 의도했던 대로 신체적 매력의 수준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

15개의 성격특성 형용사로 대상의 성격을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한 평균점수에 대해 3(매력도: 고, 중, 저) * 2(대상의 성: 남, 여) * 2(평가자의 성: 남, 여) * 2(조: 1, 2)의 4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매력도와 대상의 성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2, 151) = 33.21, p < .01$. 표 3에 성격특성 평정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 대상에 대한 Duncan 검정 결과, 대상이 여성일 경우 저매력 대상에 대한 평가가 중매력이나 고매력 대상에 대한 평가보다 더욱 긍정적이었으나, 대상이 남성일 경우에는 고매력 대상이 중매력 대상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또한 중매력 대상이 저매력 대상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여성에 대해서는 저매력일 때 가장 성격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여 서구의 경우와 같은 신체매력의 후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 대상에 대해서는 외모가 매력적일수록 전반적으로 좋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지각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도 남자들을 지각함에 있어서는 신체매력의 후광효과가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표 3〉 매력도와 대상의 성에 따른 성격특성의 평가 평균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고	4.29 (0.68)		4.93 (0.68)	
중	4.06 (0.70)		4.63 (0.64)	
저	4.55 (0.79)		3.90 (0.67)	

주. 특성 평정은 각 특성형용사에 대한 7점 척도(1: 부정적 의미, 7: 긍정적 의미)상의 평가임. 이하 표의 주를 생략함.

그외에, 대상의 성과 매력도 그리고 조건에 의미있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F(2, 151) = 9.51, p < .001$. 즉, 고매력의 여성사진과 중매력의 남성사진을 평가할 때는 조2를 조1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그외에는 조

1을 조2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다음, 성격특성 평정에 대한 요인분석(주성분분석과 varimax회전법)을 남·녀 각 대상에 대해 실시하였다. 먼저, 여자 대상에 대한 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네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이들은 전체 변량의 70.5%를 설명하였다. 제1요인(34.1% 설명)은 ‘사회적 온정성’요인으로 “정직하다, 믿을 만하다, 따뜻하다, 남을 잘 돕는다, 친절하다”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제2요인(20.0%)은 ‘지적·성실’요인으로 “지적이다, 성실하다, 깊이 생각한다, 안정감이 있다”의 문항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제3요인(9.2%)은 ‘사회적 능력·사교성’의 요인으로 “자신감이 있다, 외향적이다, 독립적이다, 사교적이다”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제4요인(7.3%)은 ‘허영심·정서적’요인으로 “허영심이 있다, 정서적이다”가 그 문항들이다.

각 요인에 속한 특성들에 대한 평가의 평균에 대해 매력도, 피험자의 성과 조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온정성’요인에 있어 매력도의 주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F(2, 155) = 22.48, p < 0.01$. Duncan 검정 결과, 저매력대상($m = 4.96$)이 고매력($m = 3.96$)이나 중매력($m = 3.76$)대상보다 더욱 온정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지적·성실’ 요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다음, ‘사회적 능력’요인에 대해서는 매력도 주효과, $F(2, 153) = 21.30, p < 0.01$, 조 주효과, $F(1, 153) = 12.99, p < 0.01$, 그리고 매력도 * 조의 상호작용효과($F(2, 153) = 10.0, p < 0.01$)가 유의미하였다. 매력도효과에 대한 Duncan 검정 결과, 고매력대상($m = 5.23$)이 제일 사회적 능력이 높고, 그 다음이 중매력대상($m = 4.48$)이고, 저매력대상($m = 3.93$)이 사회적 능력이 제일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도와 조와의 상호작용은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조1보다는 조2의 경우 더욱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영·정서적’요인에 대해서는 매력도효과만이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F(2, 155) = 18.87, p < 0.01$. 이것은 매력도가 높을수록 더욱 허영적·정서적으로 지각되었음을 의미한다(고매력 $m = 4.74$; 중매력 $m = 4.34$; 저매력 $m = 3.64$).

한편, 남자대상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네 요인을 얻었는데, 이들은 전체 변량의 79.2%를 설명하였다. 제1요인은 ‘사회적 온정성’요인(35.

5% 설명)으로 “믿을 만하다, 따뜻하다, 남을 돕는다, 사교적이다, 친절하다, 정서적이다”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제2요인은 ‘지적’요인(15.3% 설명)으로 “지적이다, 깊이 생각한다, 안정감이 있다”의 문항들이 이에 속하였다. 제3요인(11.2% 설명)은 ‘외향성·자신감’요인인데, “자신감이 있다, 외향적이다, 독립적이다”들로 이루어 졌다. 제4요인(9.9% 설명)은 ‘성실성’요인인데, “정직하다, 성실하다, 허영적이지 않다”들이었다.

각 요인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먼저 ‘사회적 온정성’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매력도 주효과가 나타났다, $F(2, 155)=44.49, p<0.01$. Duncan 검증 결과에 의하면 매력도 가 높은 남성일수록 더욱 온정적이고 사교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고매력 $m=5.04$; 중매력 $m=4.28$; 저매력 $m=3.41$). 다음, ‘지적’요인에 대해서는 매력도효과($F(2, 153)=36.24, p<0.01$)와 매력도 *조의 상호작용 효과($F(2, 153)=4.21, p<0.05$)가 유의미하였다. 매력도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중매력대상을 가장 지적으로($m=5.02$) 지각하고, 그 다음으로 고매력 대상을 지적으로($m=4.63$) 지각하며, 저매력대상에 대해 가장 덜 지적($m=3.54$)으로 지각함을 나타낸다. 매력도와 조와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매력도의 효과가 1조보다는 2조의 사진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의미하였다. 다음, ‘외향성·자신감’요인의 경우, 매력도 주효과($F(2, 155)=3.22, p<0.05$)와 매력도 *조의 상호작용($F(2, 155)=26.84, p<0.01$)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매력도 주효과를 분석해 보면, 중매력과($m=5.01$) 고매력($m=4.96$) 대상을 저매력 대상($m=4.60$)보다 더욱 자신감이 있고 외향적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도의 효과는 1조 사진들에 국한되었으며 2조 사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매력대상에 대한 평가가 제일 높았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요인에 대해서는 매력도 *조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2, 155)=8.99, p<0.01$. 이 요인에 있어서 매력도효과는 사진의 조에 따라 일관되지 않아 매력도의 주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여자 대상에 대해서는 매력적일수록 사교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나 한편 덜 온정적이며 더 허영적·정서적이라고 지각하여 신체매력의 후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성격의 측면에 있

어서는 전반적으로 저매력 여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남성 대상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사교적이며 일반적으로 더 자신감이 있고 외향적이라고 지각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했듯이, 서구에서는 남·녀 대상에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더욱 사교적이고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며 더 강하고 더 잘 적응되어 있다고 지각함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상의 성에 따라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의 성격특성을 다르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매력의 긍정적 효과는 남자에 대해서는 적용되나 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객관적 상황(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관한 평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능력과 인간관계에 관한 평가를 묻는 문항들에 대한 7점 척도상의 평가 평균을 각각 변량분석하였다. 먼저, 가정생활에 대한 5 문항에서의 평정 평균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 대상의 성과 매력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F(2, 151)=28.96, p<.01$. 표 4에 그 평가 평균이 나타나 있다. 대상의 성별로 매력도효과에 대한 Duncan 검증을 한 결과,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대상이 여성일 경우 저매력 대상에 대해 고매력이나 중매력 대상에 대해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대상이 남성일 경우에는 고, 중, 저매력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각 매력도의 수준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대상의 성과 매력도에 따른 가정생활에 관한 평가 평균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고	4.10	(1.17)	5.14	(0.88)
중	3.79	(1.04)	4.46	(0.90)
저	4.72	(1.14)	3.69	(1.05)

다음, 직장생활에 대한 5문항의 평정 평균을 변량분석한 결과, 대상의 성과 매력도의 상호작용효과가 또한

유의미하였다, $F(2, 150)=17.33, p<.01$. 표 5에 직장생활에 관한 평정평균이 나타나 있다. 남·녀 각 대상에 대한 매력도의 효과를 Duncan 검증해 본 결과, 대상이 여성일 경우에는 저매력 대상에 대해서 중매력의 대상에 대해서보다 유의미하게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고매력의 대상에 대한 평가는 그 중간에 위치하였는데, 각각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사진이 남성일 경우에는 고매력과 중매력 대상을 각각 저매력 대상에 대해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대상의 성과 매력도와 조건에 의미있는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F(2, 150)=3.66, p<.05$. 이러한 효과는 사진이 여성일 경우 저, 고, 중매력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사진이 남성일 경우 고, 중, 저매력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때, 조1과 조2의 차이가 각 매력도수준과 대상의 성별로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표 5> 대상의 성과 매력도에 따른 직장생활에 관한 평정 평균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고	4.44 (1.04)		4.61 (0.65)	
중	4.13 (0.86)		4.44 (0.57)	
저	4.80 (1.06)		3.88 (0.6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격평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여성대상에 대해서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역할수행에 있어 매력도가 낮은 경우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남자대상에 대해서는 매력적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을 나타내 준다.

4. 자신이 개입된 상황(친구와의 친밀도, 고용상황, 배우자 및 파트너 선택)에 대한 평가

자신이 개입된 상황에 대한 문항은 만약 사진속의 인물이 친구일 경우 비밀을 어느 정도 이야기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즉, 친구로서의 친밀도의 정도를 묻는 문항)과 사진속의 인물을 고용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묻는 문항, 그리고 파트너나 배우자로 선택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구로서의 친밀도나 고용상황에 관한 분석은 매력도 *대상의 성 *평가자의 성 *조의 4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반면, 데이트 파트너나 배우자 선택에 관한 분석은 평정자가 사진이 여성일 경우에만 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매력도 *평가자의 성 *조의 3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친구로서의 친밀도. 먼저, 친구와의 친밀도에 관한 분석 결과, 대상의 성과 평정자의 성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F(1, 152)=11.76, p<.01$.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을 평가할 때보다 여성을 평가할 때 더 높은 점수로 평가하였고, 마찬가지로 남성도 여성을 평가할 때보다 남성을 평가할 때 더 높은 점수로 평가함으로써 동성에게 더 많은 비밀을 이야기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의 성과 매력도간에 의미있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F(2, 152)=18.00, p<.01$.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대상에 대한 Duncan 검증 결과 여성대상의 경우 저매력 대상에 대해 중매력 대상에 대해서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평가를 하였고 고매력 대상에 대한 평가는 저매력이나 중매력 대상에 대한 평가와 다르지 않았다. 한편, 남자 대상에 대해서는 고, 중, 저매력 순으로 높이 평가되어서 대상이 남성일 경우 매력적일수록 친구로서 더욱 친밀히 지낼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6> 대상의 성별과 평정자의 성별에 따른 친구로서의 친밀감 평정 평균

평가자	대		상	
	여	자	남	자
여 자	3.60 (1.53)		3.12 (1.45)	
남 자	3.46 (1.56)		4.06 (1.43)	

<표 7> 대상의 성과 매력도에 따른 친구로서의 친밀감 평정 평균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고	3.45 (1.45)		4.38 (1.29)	
중	3.11 (1.40)		3.65 (1.38)	
저	4.02 (1.65)		2.79 (1.45)	

<표 8> 대상의 성과 매력도에 따른 고용의사의 평정 평균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고	4.32	(1.52)	4.89	(1.62)
중	3.76	(1.32)	4.46	(1.46)
저	4.23	(1.53)	3.59	(1.50)

고용의사. 대상의 성과 매력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2, 152)=6.04, p<.05$. 표 8에 그 평균이 나타나 있다. 또한 대상의 성, 평가자의 성 그리고 매력도간에 의미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F(2, 152)=3.07, p<.05$. 이 세 변인에 따른 평가 평균은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여자대상에 대해서는 고매력과 저매력일 때 중매력일 때보다 더욱 고용의사가 큰 반면, 남자대상에 대해서는 저매력대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남자평정자보다는 여자평정자의 경우 더욱 그러했음을 표 9에서 볼 수 있다.

<표 9> 대상의 성, 평가자의 성, 매력도에 따른 고용의사의 평정 평균

평정자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고	4.54	(1.39)	4.65	(1.77)
	중	3.39	(1.10)	4.54	(1.62)
	저	4.39	(1.40)	3.36	(1.52)
여	고	4.11	(1.63)	5.07	(1.47)
	중	4.15	(1.43)	4.37	(1.31)
	저	4.03	(1.65)	3.82	(1.47)

축제 파트너 선택 상황. 대상인물을 축제파트너로서 선택함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평정 결과, 매력도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였다, $F(2, 166)=29.71, p<.01$. 표 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Duncan 검증 결과 매력도가 높을수록 데이트상대로서 더욱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배우자 선택 상황. 대상인물을 배우자로 선택했을 때

<표 10> 매력도 수준에 따른 데이트 상대로서의 만족도 평정 평균

매력도	만족도 평정 평균	
고	4.46	(1.78)
중	3.60	(1.71)
저	2.14	(1.31)

의 만족도평정에 대한 분석 결과, 매력도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2, 166)=29.10, p<.01$. 또한 평가자의 성과 매력도의 상호작용이 의미있게 나타났다, $F(2, 166)=3.81, p<.05$. 표 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로서의 만족도에 대해 여자 피험자는(남자사진에 대해) 매력도의 순서대로 차이나게 평가하였는데 남성 평가자들은(여자사진에 대해) 고매력과 중매력 대상을 모두 저매력 대상보다 배우자로서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배우자 선택에 있어 대체로 대상의 매력도가 높을수록 호의적으로 평가되었다.

<표 11> 평가자의 성과 매력도에 따른 배우자로서의 만족도 평정 평균

평가자	매력도	만족도 평정 평균	
여	고	4.46	(1.32)
	중	3.39	(1.62)
	저	1.68	(0.82)
남	고	3.50	(1.82)
	중	3.22	(1.69)
	저	2.21	(1.07)

5. 호감도 평가

대상 인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평정점수를 분석한 결과, 매력도($F(2, 152)=29.12, p<0.01$), 조($F(1, 152)=5.39, p<0.05$), 대상의 성 * 피험자의 성($F(1, 152)=10.97, p<0.01$), 대상의 성 * 매력도($F(2, 152)=17.0, p<0.01$), 대상의 성 * 조($F(1, 152)=4.76, p<0.05$), 대상의 성 * 피험자의 성 * 매력도($F(2, 152)=3.11, p<0.05$) 그리고 대상의 성 * 매력도 * 조의 효과($F(2, 152)=3.37, p<0.05$)가 유의미하였다. 표 12에 대상의 성, 피험자의 성, 그

리고 매력도에 따른 호감도 평정 점수가 나타나 있다. 표 12에 나타나 있듯이, 남자 대상에 대해서는 남·녀 피험자 모두 매력도가 높을수록 좋아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대상의 경우 남자 피험자에 비해 여자 피험자는 저매력 대상에 대해 고매력 대상만큼 좋아한다고 평정하였다.

<표 12> 대상의 성, 평가자의 성, 매력도에 따른 호감도의 평정 평균

평가자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고	3.65	(1.26)	4.58	(1.30)
	중	3.04	(1.00)	3.25	(1.27)
	저	3.75	(1.32)	2.07	(1.12)
고	고	3.44	(1.67)	4.96	(1.13)
	중	3.37	(1.55)	3.81	(1.42)
	저	2.61	(1.40)	2.75	(0.89)

자신이 개입된 상황에 대한 이와같은 결과를 정리해 보면, 친구로서의 친밀감이나 고용의사에 있어서는 성격평정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적응도에 관한 평가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즉, 대상이 여성일 경우, 저매력 대상에 대해 고매력대상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친구로 친밀하게 사귀고 싶다고 하였고 또한 고용하고 싶은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대상이 남성일 경우에는 매력도의 순서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데이트상대나 결혼상대로는 매력도가 높을수록 보다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가정생활의 적응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이다. 즉,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적응도는 저매력 여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평가가 배우자로서의 만족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자신의 배우자로는 매력적일수록 더욱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흥미로운 결과는 아마도 데이트 상대나 결혼 상대로는 적응도에 대한 이성적 평가보다는 상대에 대한 감정이나 호감이 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상 이성에 대한 호감도 평가에는 신체 매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자료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실험 1의 결과는 신체매력이 대인평가에 미치는 영향에는 문화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실험 1에서는 또한 사진의 조의 효과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 얼굴의 매력도와의 다른 측면(예를 들어, 전체적 느낌 혹은 마른 정도)이 대인지각에 또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실험 1에서 사용한 사진들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사진들이 다른 사진들과 매력도의 차이점(즉, 마른 정도, 배경이 있는 경우)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러한 차이점이 조의 효과를 자아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 2에서는 따라서 일부 사진을 교체하여 신체 매력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재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실험 2

실험 2는 실험 1에서 나타난 결과가 반복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때 실험 1에서 사용한 사진들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험 2에서는 일부 사진들을 교체하여 매력도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실험 2에서는 자기검색정도와 성역할정체감의 개인차에 따라 매력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206명(여자: 73명, 남자: 133명)의 학생이었다. 이들은 가의 점수를 얻기 위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설계는 3(매력도: 저매력, 중매력, 고매력) * 2(피험자의 성: 남성, 여성) * 2(조: 조1, 조2) * 2(대상의 성: 여성, 남성)의 4요인 혼합설계였고 마지막 변인만이 피험자내 변인이고 나머지는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도 구

1. 사진

사진은 실험 1에서 사용한 사진과 동일하였으나 저매력 남, 여사진과 고매력 남사진을 교체하였다. 이들 사진을 바꾼 이유는 얼굴의 마른 정도를 다른 사진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배경을 다른 사진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2. 질문지

실험 1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전반적 내용은 같으나 문항들은 다소 변형시켰다. 즉, 가정생활에서의 행복도와 역할수행의 질문을 3문항(즉, “가정생활에서 행복할 것이다”, “아내(남편)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다”)으로 줄였다. 또한 성격특성평가 형용사 중 실험 1에서 사용한 ‘정서적-비정서적’, ‘깊이 생각함-깊이 생각하지 않음’과 ‘안정감이 있다-안정감이 없다’ 대신에 ‘물질적이다-물질적이지 않다’와 ‘이기적이다-이기적이지 않다’를 실험 2에서는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배우자, 데이트 상대 그리고 신입사원으로 선택하였을 때 만족할 정도를 각각 표시하게 하였고 친구로서의 친밀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상에 대한 일반적 호감도와 매력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검색척도와 성역할척도가 포함되었다. 자기검색척도는 Snyder와 Gangestad (1986)의 척도를 이주일(198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성역할유형은 Bem(1974)의 성역할척도를 정진경(1990)이 한국형으로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절 차

실험 2의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결과 및 논의

각각의 종속측정치에 대해 신체의 매력도 *대상의 성 *피험자의 성 *조의 4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두번째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고 나머지는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1. 조작 점검

실험 2에서 사용한 사진들의 매력도를 7점척도(1: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7: 매우 매력적이다)로 평정하게 하여 신체적 매력도의 조작의 성공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매력도의 주효과($F(2, 192)=56.67, p<0.01$), 대상의 성과 피험자의 성의 상호작용 효과($F(1, 192)=8.67, p<0.01$)와 대상의 성과매력도의 상호작용효과($F(2, 192)=11.41, p<0.01$)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표 13에 대상의 성과 매력도에 대한 평정이 나타나 있다. 대상의 성별로 각각 Duncan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자대상에 대해서는 고매력, 중매력, 저매력의 순서로 매력도 평정의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남자대상에 대해서는 고매력과 중매력의 대상이 저매력의 대상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정되었다.

<표 13> 대상의 성별과 매력도 수준에 따른 매력도의 평정 평균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고	4.99	(1.42)	4.16	(1.42)
중	3.20	(1.44)	3.91	(1.69)
저	2.38	(1.17)	2.77	(1.44)

주 1. 매력도의 평정은 7점 척도(1: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7: 매우 매력적이다)를 사용하였음

2. ()는 표준편차임.

표 14에는 대상의 성과 피험자의 성에 따른 매력도의 평정이 나타나 있는데 동성의 대상을 이성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4> 대상의 성별과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매력도의 평정 평균

피험자의 성	대		상	
	여	자	남	자
여 자	3.60	(1.65)	3.18	(1.69)
남 자	3.50	(1.78)	3.88	(1.54)

이러한 결과로 보아 매력도 수준의 조작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남자 대상의 경우 고매력과 중매력 대상의 매력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성격특성 평가

성격특성은 특성형용사 14개의 평정을 평균하여 이에 대한 변량분석을 한 결과 매력도 주효과($F(2, 193)=8, p<0.01$), 대상의 성에 대한 주효과($F(1, 193)=24.48, p<0.01$), 그리고 대상의 성 *매력도의 상호작용효과($F(2, 193)=19.74, p<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15에 그 평균이 나타나 있다.

각 대상별로 Duncan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자대상에

〈표 15〉 대상의 성별과 매력도 수준에 따른 매력도의
평정 평균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고	4.14	(0.61)	4.91	(0.72)
중	3.98	(0.72)	4.52	(0.84)
저	4.29	(0.71)	4.04	(0.70)

주. 특성평정은 각 특성 형용사에 대한 7점 척도(1: 부정적 의미, 7: 긍정적 의미)상의 평가임. 이하 표의 주를 생략함

대해서는 저매력 대상을 중매력 대상보다 유의미하게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고매력 대상은 중간의 평가를 받아 저매력 대상과 중매력 대상에 대한 평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남자대상에 대해서는 매력도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고매력의 대상을 중매력의 대상보다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중매력 대상보다 저매력 대상을 또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1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서구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매력의 후광효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여자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남자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과 남성대상에 대한 특성평정에 대해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매력도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varimax회전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먼저 여자대상에 대한 분석은 고유치가 1이상인 세 요인을 얻었다(전체 변량의 67%를 설명). 첫번째 요인(전체 변량의 37.4% 설명)은 '사회적 온정성'요인으로 '따뜻하다, 정직하다, 친절하다, 남을 돕는다, 이기적이지 않다'의 문항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 요인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매력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F(2, 193)=16.96, p<0.01$),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매력 대상에 대한 평가 점수($m=4.61$)가 고매력 대상($m=3.74$)이나 중매력 대상($m=3.66$)에 대해서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두번째 요인(전체의 17.6% 설명)은 '사회적 능력·허영심'의 요인으로 '자신감이 있다, 외향적이다, 허영심이 있다, 물질적이다, 사교적이다'의 문항들이 포함

된다. 이 요인에 대한 변량분석은 매력도 주효과($F(2, 193)=85.49, p<0.01$), 조의 주효과($F(1, 193)=5.83, p<0.01$), 그리고 매력도와 조의 상호작용효과($F(2, 193)=12.03, p<0.01$)가 유의미하였다. 매력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고매력 대상에 대한 평가($m=5.44$)가 중매력 대상에 대한 평가점수($m=4.21$)보다 높았고 후자에 대한 평가는 저매력 대상에 대한 평가($m=3.39$)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1조에서 2조에서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세번째 요인(전체 변량의 12.1% 설명)은 '지적 능력·성실성'요인으로 '지적이다, 믿음만하다, 독립적이다, 성실하다'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남자 대상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전체 변량의 70%를 설명하였다. 첫번째 요인(전체 변량의 36.6% 설명)은 '사회적 온정성'의 요인으로 '정직하다, 허영적이지 않다, 따뜻하다, 친절하다, 물질적이지 않다, 이기적이지 않다, 남을 돕는다.' 등의 7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요인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피험자의 성($F(1, 194)=4.07, p<0.05$), 매력도($F(2, 194)=13.63, p<0.01$), 조($F(1, 194)=4.32, p<0.05$)와 피험자의 성과 조의 상호작용효과($F(1, 194)=6.98, p<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중 매력도 효과를 알아 보면 여자대상에 대한 결과와는 달리 고매력에 대한 평가점수($m=4.89$)가 중매력($m=4.18$)이나 저매력($m=4.00$)대상에 대한 평가점수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지적능력·성실성'요인(전체 변량의 16.7% 설명)에 대한 분석은 유의미한 매력도 효과($F(2, 194)=12.84, p<0.01$)와 조효과($F(1, 194)=19.33, p<0.01$)를 얻었다. 중매력($m=4.82$)과 고매력 대상($m=4.79$)에 대해 저매력($m=3.88$)대상에 대해서보다 더 지적이고 성실하다고 평가하였다.

세번째 요인(9.2% 설명)은 '사회적 능력·사교성'요인으로 '자신감이 있다, 외향적이다, 사교적이다'의 문항이 이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매력도 효과($F(2, 194)=11.88, p<0.01$)와 조효과($F(1, 194)=17.34, p<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매력도의 주효과는 고매력($m=4.79$)과 중매력($m=4.82$)대상에 대한 평가가 저매력에 대한 평가보다 더 긍정적

임을 나타낸다.

마지막 요인(7.7% 설명)은 ‘비의존성’의 요인으로 변량분석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요약하면, 여자 대상에 대해서는 매력적일수록 사교적이고 사회적 활력과 능력이 높고 한편 허영심이 많다고 지각한 반면 사회적 온정성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여성이 덜 매력적인 여성에 비해 낮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전반적 성격평정에 있어서는 저매력 여성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한편 남자 대상에 대해서는 매력적일수록 온정적이고 지적이고 사교적이라고 지각하여 서구의 경우와 같은 신체적 매력의 후광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소한 차이(예를 들어, 실험 1에서는 중매력의 남자가 고매력의 남자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되었다)를 제외하면, 실험 1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로서 신체 매력의 효과에 문화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내 준다.

3. 객관적 상황에 대한 평가

대상인물이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원만한 인간관계와 원활한 역할 수행을 할지를 평가하게 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대상인물을 배우자, 데이트 상대, 혹은 신입사원으로서 얼마나 원할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 4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가정생활에서의 역할수행과 행복도를 묻는 3문항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매력도의 주효과($F(2, 194)=7.15, p<0.01$), 대상의 성에 대한 주효과($F(1, 194)=10.15, p<0.01$)와 매력도와 대상의 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F(2, 194)=20.96, p<0.01$)가 유의미하였다. 표 16에 그 평정평균이 대상의 성별과 매력도 수준별로 나타나 있다.

<표 16> 가정생활에서의 역할수행과 행복도에 대한 평정 평균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고	4.05	(1.04)	5.08	(1.06)
중	4.08	(1.06)	4.54	(1.12)
저	4.25	(0.94)	3.81	(1.08)

각 대상별로 매력도의 효과에 대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자대상에 대해서는 매력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자대상에 대해서는 각 매력도 수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매력적일수록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직장생활의 역할수행과 인간관계를 묻는 5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매력도의 주효과($F(2, 194)=13.19, p<0.01$), 대상의 성의 효과($F(1, 194)=8.79, p<0.01$)와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F(2, 194)=6.03, p<0.01$)가 역시 유의미하였다. 표 17에 그 평균이 나타나 있는데, 여자대상에 대해서는 가정생활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력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남자대상에 대해서는 고매력 대상과 중매력 대상이 저매력 대상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평가를 얻었다.

<표 17> 직장생활에서의 역할수행과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의 평균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고	4.36	(0.84)	4.81	(0.78)
중	4.08	(0.93)	4.57	(0.92)
저	4.08	(0.86)	3.93	(0.99)

요약하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역할수행과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의 경우, 여자대상에 대해서는 매력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자 대상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단지 저매력 여성에 대한 평가가 실험 1과는 달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4. 자신이 개입된 상황에 대한 평가

피험자가 대상인물에 대해 친구로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즉, ‘어느 정도로 비밀을 털어놓을 것인가?’), 또한 대상인물을 고용하거나 데이트 상대로 삼거나 배우자로 삼았을 때 얼마나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여 각각을 분석하였다.

먼저, 친구로서의 친밀도 평정에 대한 4원 변량분석 결과, 매력도($F(2, 192)=4.98, p<0.01$), 대상의 성*매력도($F(2, 192)=10.49, p<0.01$), 그리고 대상

의 성 *매력도 *조의 효과($F(2, 192)=6.76, p<0.01$)가 유의미하였다. 표 18에 그 평정평균이 나타나 있다. 표 17에서 보면, 남자 대상에 대해서는 조에 상관 없이 고매력 대상에 대한 평가가 중매력이나 저매력 대상에 대한 평가보다 높았으나, 여자 대상에 대해서는 특히 중매력 조건에서 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대상의 성별로 매력도 효과에 대한 Duncan 검증 결과, 여자 대상에 대해서는 매력도에 의한 평가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 대상에 대해서는 고매력 대상에 대한 평가($m=4.61$)가 중매력($m=3.55$)이나 저매력($m=3.40$) 대상에 대한 평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18> 대상인물에 대한 친구로서의 친밀성 평가

매력도	조	대		상	
		여	자	남	자
고	1	3.92	(1.38)	4.56	(1.34)
	2	3.24	(1.39)	4.68	(1.25)
중	1	2.88	(1.43)	3.76	(1.48)
	2	4.03	(1.38)	3.33	(1.69)
저	1	3.97	(1.70)	3.26	(1.46)
	2	3.75	(1.52)	3.55	(1.52)

다음으로 대상인물을 고용했을 때의 만족도 평가에 대한 4원 변량분석 결과 매력도($F(2, 191)=10.16, p<0.01$), 대상의 성($F(1, 191)=3.93, p<0.05$), 그리고 대상의 성 *매력도 *조의 상호작용 효과($F(2, 191)=3.83, p<0.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표 19> 대상인물을 신입사원으로서 채용했을 때의 만족도 평가

매력도	조	대		상	
		여	자	남	자
고	1	4.72	(1.21)	5.14	(1.15)
	2	4.33	(1.49)	5.30	(0.85)
중	1	4.23	(1.46)	5.03	(1.32)
	2	4.94	(1.06)	4.58	(1.37)
저	1	4.39	(1.43)	4.09	(1.33)
	2	4.18	(1.18)	4.33	(1.29)

19에 그 평정평균이 나타나 있다. 대상의 성별로 매력도 효과에 대한 Duncan 검증 결과, 여자 대상에 대해서는 매력도 효과가 역시 나타나지 않았으나($m=4.53$ 고매력; $m=4.59$ 중매력; $m=4.29$ 저매력) 남자 대상에 대해서는 고매력($m=5.22$)과 중매력($m=4.81$) 대상이 저매력($m=4.21$)대상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다음으로 데이트 상대로서의 평가와 배우자로서의 만족도 평가에 대해 매력도, 피험자의 성과 조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평가 모두에 대해 매력도 효과만이 유의미하였다, $F(2, 193)=25.17, p<0.01$ (데이트 상대), $F(2, 193)=20.62, p<0.01$ (배우자). Duncan 검증 결과 두 종속평가 모두에 대해 매력도 수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20에 그 평균이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신적적으로 매력적 일수록 사람들은 대상인물을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로서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표 20> 대상인물에 대한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로서의 만족도 평가

평가	매력도		
	고	중	저
데이트 상대	4.41 (1.73)	3.43 (1.70)	2.49 (1.22)
배우자 선택	3.93 (1.75)	3.09 (1.65)	2.22 (1.11)

요약하면, 사람들은 배우자나 데이트상대와 같은 관계를 맺는 데에는 의모가 매력적인 남·녀를 그렇지 않은 남·녀보다 선호하지만, 친구나 피고용인으로서의 관계를 갖는 데에는 남성 대상에 대해서만 매력적 일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성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친구로서의 친밀도나 고용상황에 대한 평가는 성격평정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적응도에 대한 평가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배우자나 데이트 상대와 같은 이성으로서의 관계를 갖는 데에 대한 평가는 가정생활에 대한 일반적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5. 호감 평정

대상인물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의 평가에 대해 4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 매력도 효과($F(2, 192)=18.79, p<0.01$), 피험자의 성 *대상의 성($F(1, 192)=5.$

87, $p < 0.05$) 그리고 피험자의 성 * 대상의 성 * 매력도의 효과 ($F(2, 192) = 5.19, p < 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1에 평정평균이 나타나 있는데, 이성에 대한 평가는 매력도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반면 동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이 여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매력 대상을 고매력 대상만큼 좋아한다고 평정함으로써 매력도에 의한 평가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1> 대상인물에 대한 호감도 평가

피험자의 성 매력도		대 상			
		여	자	남	자
여	고	3.60	(1.38)	4.32	(1.77)
	중	3.13	(1.39)	3.29	(1.57)
	저	3.58	(1.53)	2.42	(1.35)
남	고	4.23	(1.49)	4.66	(1.41)
	중	3.29	(1.58)	3.89	(1.58)
	저	2.62	(1.27)	3.40	(1.38)

6. 개인차 변인이 매력도 효과에 미치는 영향

자기검색. 자기검색에 있어서의 차이가 매력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피험자를 자기검색 척도 점수의 중앙치 ($mo = 3.78$)를 기준으로 하여 낮은 자기검색자와 높은 자기검색자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종속 측정치에 대해 피험자의 성 * 대상의 성 * 매력도 * 자기검색 정도의 4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의 효과를 포함시키면 피험자의 수가 너무 적어지므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결과, 자기검색 정도와 매력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 종속 변인에 대해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기검색 정도가 매력도의 효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검색 정도를 중앙치에 의해 결정하여 자기검색 정도의 차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비교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검색 정도가 보다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들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성역할 유형. 피험자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 각각의 중앙치에 의해 네가지 성역할유형(양성형, 여성형, 남성형과 미분화)으로 피험자를 구분하였다. 각각

의 종속측정치에 대해 피험자의 성 * 대상의 성 * 매력도 * 성역할유형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도 각각의 성역할 유형으로 구분되는 피험자의 사례수가 너무 적게 되어 정확한 검증이 되지 못하였다.

종합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 매력의 효과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서구와는 다른 양상으로 작용하여 문화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신체 매력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의 내용이 대상의 성별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즉, 여자 대상에 대해서는 매력적일수록 더 사교적이고 외향적이지만 동시에 더욱 허영심이 많고 정서적이며 덜 따뜻하고 덜 친절하며 남을 잘 돕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지각하였다. 반면, 남자 대상에 대해서는 매력적일수록 더욱 따뜻하며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외향적이고 지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것은 최근의 Eagly 등(1991)이 개관 논문에서 지적한대로, 서구에서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남·녀 대상 모두에 대해 사교적이고 사회적 활력·사회적 능력이 있으며 또한 강하고 적응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나 한편 허영심이 많다고 지각한다는 사실과는 괴리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모가 매력적인 사람(남·녀)에 대해 더욱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라고 지각하지만, 한편 매력적인 여자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허영심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전반적인 인상평정이 덜 매력적인 여성들에 대해서와 비슷하거나 더 부정적이었다. 남자들에 대해서는 신체 매력의 후광효과가 나타났다.

가정생활·직장생활에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남자에 대해서는 매력적일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여자에 대해서는 저매력 대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실험 1) 혹은 매력도에 따라 다르게 평정하지 않았다(실험 2). 이와 비슷하게 친구나 피고용인의 선택에 있어서도 남자대상에 대해서만 신체 매력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여자대상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배우자·데이트상대 선택에 있어서는 매력적일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매력도의 효과는 이성간의 관계에 있어서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외국 자료의 경우 신체매력이 대인평가에 미치는 효과는 남자에 대해서보다는 여자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보고(Wallston & O'Leary, 1981)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상대적으로 보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보다 경직되게 구분되는 성역할을 강요하고 따라서 남자보다는 여자에 있어 신체적 매력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다소 일반적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미인박복”과 같은, 여자의 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해 왔고, 본 연구 결과는 신체 매력이 대인 지각이나 평가에 미치는 효과에 그러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이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다거나 가정생활·직장생활에서 원활한 역할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배우자나 데이트상대로는 보다 매력적인 사람들을 선호하여, 신체 매력의 긍정적인 효과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평가에보다는 감성이나 이성간의 호감 등에 작용하여 대인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가, 특히 저매력 여성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친구로서의 친밀감이나 피고용인으로서의 바람직성 평가에 있어, 일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실험 1에서는 저매력 여성이 고매력 여성이나 중매력의 여성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에 반해 실험 2에서는 여성 대상에 대한 매력도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 1과 실험 2에서 사용한 저매력 여성의 사진들이 달랐다는 데에 기인되었을 수 있는데, 실험 1에서 사용한 저매력 여성의 사진은 “통통한” 얼굴이었던 데 반해 실험 2에서 사용한 사진은 다소 마른 얼굴이었다. 이와같은 두 실험의 결과의 차이는 얼굴에 대한 인상형성과정에 관한 흥미로운 하나의 가설을 시사해 준다. 즉,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인상형성이나 대인평가를 할 때, 얼굴의 매력도 뿐만 아니라 “덕있어 보임” 혹은 “복스러움”의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얼굴에 대한 원형(예를 들어, “현모양처형”, “가련형”, “모사꾼형” 등)들이 있어서 그러한 원형에 관한 여러 지식들에 의거하여 타인에 대

한 인상을 형성하고 대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가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얼굴 원형에 대한 가설은 후속 연구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얼굴의 사진들만 제시하여 신체 매력의 효과를 검토해 보았으므로 그 결과가 실생활에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매력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과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얼굴의 매력도 뿐만 아니라 몸의 매력도의 영향도 중요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기본적인 앞으로의 연구 주제는 과연 얼굴 혹은 몸의 어떠한 요소가 신체 매력 지각에 필수적인가를 밝히는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실생활의 인간관계에 시사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적어도 오늘의 우리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남자의 매력도가 성격평정·친구관계·고용관계·애인관계·배우자관계 등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대인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적당히 깔끔하지 않은 남자가 오히려 믿음직하고 털털한 인상을 자아낸다는 이전의 통념은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이 되지 못함을 본 연구 결과가 지적해 준다.

참 고 문 헌

- 이주일(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 양식의 비교: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의식척도를 대상으로. 미발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82-92.
- Anderson, S.M., & S.L. (1981). Sex-typing and androgyny in dyadic interac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siveness to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74-86.
- Bem, S.I.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rscheid, E., & Walster, E. (1974). Physical attractivenes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7, pp.157-215). New York: Academic Press.
- Dion, K., Berscheid, E., & Walster, E. (1972).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285-290.
- Dipboye, R.L., Arvey, R.D., & Terpstra, D.E. (1977). Sex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raters and applicants as determinants of resume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288-294.
- Eagly, A.H., Ashmore, R.D., Makhijani, M. G., & Longo, L.C. (1991). *Psychological Bulletin*, 110, 109-128.
- Sigall, H. & Ostrove, N. (1975). Beautiful but dangerous: Effects of offender attractiveness and nature of the crime on juridic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10-414.
- Snyder, M., Berscheid, E., & Glick, P. (1985). Focusing on the exterior and the interior: Two investigations of the initiation of 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427-1439.
- Snyder, M., Berscheid, E., & Matwychuk, A. (1988). Orientation toward personnel selection: Differential reliance on appearance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972-979.
- Snyder, M., & Gangestad, S. (1986). On the nature of self-monitoring: Matters of assessment, matters of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139.
- Walster, E. (1966). Importa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d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508-516.
- Wallston, B.S., & O'Leary, V.E. (1981). Sex makes a difference: Differential perceptions of women and men.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The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Impression Judgment in Koreans.

Hai-Sook Kim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impression judgment in Koreans. In Experiment1, subjects examined photographs(face) of a man and a woman whose face was either highly attractive, moderately attractive or unattractive. Subjects then evaluated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role effectiveness of the target person in family and job situations, and indicated the degree with which subjects would be satisfied at the possible relationship with the target person as a friend, employee, date and spouse. Experiment2 reexamined the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as well as whether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monitoring and sex-role type influenced the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impression judgment. The results of both experiments demonstrated that physically attractive women were perceived as being sociable, extrovert, rather cold, unkind, and vain.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people evaluated physically attractive women as less effective in their role in home and job situations, and as less desirable as friends and employees than less attractive women. However, subjects rated the target person more desirable as a date or a spouse, the more attractive she was. In contrast to the evaluation regarding female targets, the evaluation toward male targets demonstrated a halo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Physically attractive males were perceived as being sociable, extrovert, confident, warm and kind. They were also evaluated as more effective in their role in home and job situations, and more desirable as friends, employees, dates and spouses than unattractive males. These cultural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were discussed as implicating the cultural-specific face prototypes, which might affect interpersonal evaluation and judgment.